

2024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공연-창작준비 】 심의평

2024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창작준비 부문은 351건이 접수되어 서류평가를 통해 인터뷰 심의 대상 16건을 결정한 후,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10건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제시된 심의기준에 따라 연극, 음악, 무용, 공연기획의 세부 장르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과 함께 주요 참여 예술인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연화하였을 때의 예술성 및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르별 세부 심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극 분야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단체보다 개인의 지원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연극의 비중이 높았고, 뮤지컬과 음악극의 지원도 많았습니다. 연극의 경우, 창작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역량과 가능성, 창작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공연화하였을 때의 성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신청자 또는 단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새로운 장르와 실험을 개척하면서도 작품의 완성도가 안정적으로 예상되는 팀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기존 장르를 넘어 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를 규정화하고 융합하거나, 단순한 퍼포먼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악기를 제작하고 드라마 터그와 작가의 개입속에서 작품의 서사를 단단하게 뒷받침하여 주제 메시지를 가지려 한 시도, 고전 판소리를 재구성하여 현대 감각에 맞춘 작창과 작곡으로 새로운 극을 구성하는 시도,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되 이에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를 결합한 독창성이 돋보이는 작품 등을 선정했습니다. 반대로 기존의 관습화된 장르를 답습 및 재포장하거나, 실험적인 시도이지만 작품에 대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컨셉과 실행 계획이 없는 경우, 융복합 종합예술을 지향하면서도 특정 부분에만 구체성을 가지고 다른 영역에서 명확한 비전이나 계획을 갖지 못한 경우 등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준비’ 사업에서 ‘초연’ 사업까지 연결된 지속성 확보가 뚜렷하지 않은 팀들이 많아 아쉬웠습니다.

무용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극명하게 적은 수가 지원했으며 그 중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세부장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정 장르는 단 한 팀이 지원하는 등 장르 간의 편차가 컸습니다. 하지만 스트리트댄스, 탭댄스 등 기초무용 외 지원자를 포함해 심의한 결과, 세부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작가정신이 투철한 지원자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실연자(무용수)의 경력은 뛰어나지만 창작자(안무가, 연출가)로서의 경력이 미흡한 경우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창작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또한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아마추어에서 벗어나 첫 창작을 계획하는 경우 2차 공모의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사업에 지원할 것을 권장하며 ‘창작준비’ 사업이 ‘초연’ 사업의 이전 단계라는 정체성을 이해하고 좋은 레퍼토리 창작을 목표로 하는 더 많은 무용인들이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연기획 분야의 시각으로 심의를 진행하며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 여러분의 정의가 저마다 달라, 지원서 내용도 제각각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업 초반의 아이디어 정도만 제시된 경우가 많았는데, ‘경기공연예술페스타’에서 쇼케이스 공연을 선보여야 하는 의무 사항을 생각하면 명확한 목표와 타겟층, 구체적인 창작계획, 이에 맞는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수한 작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준비’ 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획과 계획을 보여 주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향후에도 ‘창작준비’ 지원사업이 창작의 기초작업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자리잡아 선정 작품이 쇼케이스 공연 이후에도 예술인 및 단체의 우수 레퍼토리 작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2.22.

심의위원	김성량 ((사)한국공연관광협회 사무국장)
	이소영 (음악평론가)
	장인주 (무용평론가)
	정성진 (정공업사 대표)